

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
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1445
------	------

2020. 04. 27.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년 4월 3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0년 4월 8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293회 임시회】

-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(2020.04.27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서울특별시장)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시 노동정책의 일관성 있는 집행과 권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및 노동정책 관심 부족 등 사유로 구립 센터가 미설치된 자치구의 노동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권역별 시립 노동자종합지원

센터 확충·운영

- 나. 서남권은 첨단산업, 정보지식형 산업 시설이 집적된 서울디지털산업 단지 등이 있어 노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며, 장시간 노동, 불공정한 근로조건 등 문제해결을 통한 노동권 증진을 위해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, 노동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·실효성 제고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(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)
-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- '20년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(노동정책담당관-2388, '20. 2. 21.)

- 필요성 : 효율적인 노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동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적 역량과 풍부한 경험, 기존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민간 협력 등 양질의 노동복지서비스 제공

※ 직영 시, 행정조직 확대가 불가피하며 전문성 부족으로 서비스 질 저하

다. 위탁사무 내용 : 서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

- 서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간 시설관리 및 운영

- 서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각종 기획, 관리, 홍보 등 사업추진
 -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
 - 유관기관 및 자치구 센터 간 협력-연계사업 발굴 추진
 -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간 연계 및 사업추진
 -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노동상담·교육
 - 노동조합 설립지원 등을 통한 노동권익보호 사업
 - 문화·복지·취업지원·산업안전 등 종합적인 노동복지 서비스 제공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금천구 가산동 459-11(제이플라츠 빌딩 2층)
- 규모 : 271.07㎡
- 지원시설
 - 운영사무실, 상담실 및 회의실, 세미나실 및 지역 노동관련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을 위한 라운지 형태의 공용 공간
 - ※ 각종 행사시 공간 활용이 용이하도록 가변형으로 구성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3년(2020. 9. 1. ~ 2023. 8. 31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432백만원
- 산출근거
 - 사무관리비 : 5,750천원(부동산 중개수수료, 적격자심의위원회 수당)
 - 민간위탁금 : 361,713천원(운영기간 4개월, 운영인력 6명)
(인건비 107,713천원, 관리운영비 34,000천원, 사업비 220,000천원)
 - 기타자본이전 : 65,000천원(임차보증금)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조직담당관-3970, ' 20.3.24.)

Ⅲ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동의안의 개요

- 동의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동북권·서남권에 “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”를 설치하고,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되었음.

나.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현황

- 서울시는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노동상담·교육·노동조합 설립 지원 등 노동복지 종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“노동자 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)”를 설치·운영하고 있음.
- 당초 센터는 자치구에서 설치·운영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 구조로 설계되었음.

- 그러나 서울 전역에 걸친 체계적인 지역밀착형 노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동인구 대비 제반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시립 센터 설치를 계획¹⁾하고, 2019년 도심권·동남권 두 곳의 센터를 신규 개소하였음.

- 현재 16개의 구립센터와 2개의 권역별 시립센터를 운영 중임 [참고자료].

- 이번에 신규로 설치되는 센터는 미설치 권역인 동북권·서북권·서남권 중 구립 센터가 모두 조성된 서북권을 제외한 권역에 설치함으로써, 노동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조치임.

<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권역별 조성 현황>

구분	계	도심권	동남권	동북권	서북권	서남권
계	25	3	4	8	3	7
설치	시립 2	1	1	0	0	0
		종로	송파			
구립 16	1	1	6	3	5	
	중구*	강동	노원, 성북, 중랑, 성동, 광진, 도봉*	서대문, 은평, 마포	강서, 양천, 구로, 관악, 영등포*	
미설치	7	1	2	2	0	2
		용산	서초, 강남	강북, 동대문		동작, 금천

※ 2020년 3개의 구립 센터(중구, 도봉, 영등포, * 표기)도 개소 예정임.

- 2019년 현재 전체 센터의 이용자수는 12만 3,714명으로 전년 대비 3만 929명(25%)이 증가했음.

1)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확충 및 관리 개선계획 (노동정책담당관-2021, '19.2.18)

-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측면에서 자치구의 센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설확충은 필요함.

다. 동북권·서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조성 계획

- 동북권은 봉제, 수제화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이 다수 존재해, 지역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.
- 서울시는 동북권에 구립 센터가 미설치된 강북구와 동대문구 중 사업체와 경제활동 종사자 수가 더 많은 동대문구를 대상지로 선정 하였음.

<동북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개요>

- ▶ 시설명 : 동북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
- ▶ 위치 : 동대문구 장안동 464-1(장안빌딩 7층)
- ▶ 규모 : 전용면적 171.90㎡(52평) / 임대면적 287.60㎡(87평)
- ▶ 운영인력 : 6명 내외 (센터장 1명, 팀장·팀원 5명)



- ▶ 주요업무
 -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
 - 유관기관 및 자치구 센터 간 협력-연계사업 발굴 추진

-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간 연계 및 사업추진
 -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노동상담·교육
 - 노동조합 설립지원 등을 통한 노동권익보호 사업
 - 문화·복지·취업지원·산업안전 등 종합적인 노동복지 서비스 제공
- ▶ 소요예산(안) : 4억 3,200만원
(사무관리비 575만원/민간위탁금 3억 6,371만원/기타자본이전 6,300만원)

- 서남권은 G밸리(금천), 마곡산업단지(강서), 온수산업단지(구로) 등 R&D 및 신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,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실현과 산업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 노동서비스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.
- 서남권에는 동작구와 금천구에 구립 센터가 미설치된 바, 이 중 사업체와 경제활동 종사자 수가 더 많은 금천구를 대상지로 선정 하였음.

<서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개요>

- ▶ 시설명 : 서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
- ▶ 위치 : 금천구 가산동 459-11(제이플라츠 빌딩 2층)
- ▶ 규모 : 전용면적 148.76㎡(45평) / 임대면적 271.07㎡(82평)
- ▶ 운영인력 : 6명 내외 (센터장 1명, 팀장·팀원 5명)



▶ 주요업무

-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
- 유관기관 및 자치구 센터 간 협력-연계사업 발굴 추진
-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간 연계 및 사업추진
-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노동상담·교육
- 노동조합 설립지원 등을 통한 노동권익보호 사업
- 문화·복지·취업지원·산업안전 등 종합적인 노동복지 서비스 제공

▶ 소요예산(안) : 4억 3,200만원

(사무관리비 575만원/민간위탁금 3억 6,171만원/기타자본이전 6,500만원)

○ 구립 센터는 자치구가 사무공간을 확보해 운영·관리를 담당하고 서울시는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, 권역별 시립 센터는 예산 전체를 시에서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, 기존 구립센터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.

○ 특히 구립 센터 설치에 적극 공조하지 않은 권역별 자치구에 보다 많은 시비와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, 시의 노동정책을 선도적으로 수용해 구립 센터를 설치·운영한 자치구에 대한 역차별로 비춰질 수 있음.

라. 민간위탁의 타당성

○ 동의안의 민간위탁계획에 따르면, 수탁기관은 ▶동북권·서남권 센터의 시설관리·운영, ▶취약계층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, ▶노동상담·교육, ▶노동권익보호 사업, ▶자치구 센터

간 연계 및 사업 등의 사무를 수행하게 됨.

- 따라서 다양하고 종합적인 노동서비스 제공과 구립 센터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는 노동관련 전문 경험과 역량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으로 판단됨.
- 다만 이번에 신규 조성하는 동북권 센터와 서남권 센터의 초기 세부 계획과 예산 등이 모두 동일하게 제출된 바, 권역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편성이 요구됨.
- 한편 동북권 센터의 예산과 사업내용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에서 “조건부 적정” 결과를 받음에 따라 민간위탁계획 일부가 수정되었음.
 - 임대료·관리비 320만원(관리운영비), 보증금 200만원(기타자본이전)을 감액하여, 사업비를 520만원 증액하고 정책개발 연구조사²⁾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완하였음.

<동북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예산 세부내역 및 변경내역>

(단위: 천원)

예산과목	내 용	소요예산		
		변경 전	변경 후	증감
계		432,463	432,463	-
사무관리비	계약수수료	4,000	4,000	-
	적격자 심의위원회	1,750	1,750	-

2) 정책개발 연구조사 계획 구체화 (동북권 노동현황 실태조사/ 동북권 소규모사업장 종사자 노동 권익개선방안 연구/ 노동집약적 생활관련업종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특화사업 연구)

예산과목	내 용	소요예산		
		변경 전	변경 후	증감
민간위탁금 (4개월분)	인건비 (6명)	107,713	107,713	-
	관리운영비	34,000	30,800	△3,200
	사업비	220,000	225,200	5,000
기타자본이전	보증금	65,000	63,000	△2,000

<서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예산 세부내역>

(단위: 천원)

예산과목	내 용	소요예산
계		432,463
사무관리비	계약수수료	4,000
	적격자 심의위원회	1,750
민간위탁금 (4개월분)	인건비 (6명)	107,713
	관리운영비	34,000
	사업비	220,000
기타자본이전	보증금	65,000

- 앞으로도 각 센터가 지역밀착형 노동복지서비스 제공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, 지역별 노동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함.
- 한편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³⁾에 따르면 민간위탁 시 시의회 동의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, 이번 동북권·서남권 센터 위탁에 대한 예산은 향후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

3)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~④ (생략)

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

통해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.

- 2020년 본예산 심의 시 사전절차인 시의회 동의를 얻지 않았던 센터의 예산이 감액된 바 있음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9명, 전원찬성)

V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44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4월 3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 노동정책의 일관성 있는 집행과 권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및 노동정책 관심 부족 등 사유로 구립 센터가 미설치된 자치구의 노동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권역별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확충 운영
- 나. 서남권은 첨단산업, 정보지식형 산업 시설이 집적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등이 있어 노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며, 장시간 노동, 불공정한 근로조건 등 문제해결을 통한 노동권 증진을 위해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, 노동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·실효성 제고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- 추진근거
 -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(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)
 -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 - '20년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(노동정책담당관-2388, '20. 2. 21.)

- 필요성 : 효율적인 노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동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적 역량과 풍부한 경험, 기존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민간 협력 등 양질의 노동복지서비스 제공

※ 직영 시, 행정조직 확대가 불가피하며 전문성 부족으로 서비스 질 저하

다. 위탁사무 내용 : 서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

- 서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간 시설관리 및 운영
- 서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각종 기획, 관리, 홍보 등 사업추진
 -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
 - 유관기관 및 자치구 센터 간 협력-연계사업 발굴 추진
 -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간 연계 및 사업추진
 -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노동상담·교육
 - 노동조합 설립지원 등을 통한 노동권익보호 사업
 - 문화·복지·취업지원·산업안전 등 종합적인 노동복지 서비스 제공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금천구 가산동 459-11(제이플라츠 빌딩 2층)
 - 규모 : 271.07㎡
 - 지원시설
 - 운영사무실, 상담실 및 회의실, 세미나실 및 지역 노동관련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을 위한 라운지 형태의 공용 공간
- ※ 각종 행사시 공간 활용이 용이하도록 가변형으로 구성

○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3년(2020. 9. 1. ~ 2023. 8. 31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소요예산 : 432백만원

○ 산출근거

- 사무관리비 : 5,750천원(부동산 중개수수료, 적격자심의위원회 수당)

- 민간위탁금 : 361,713천원(운영기간 4개월, 운영인력 6명)

(인건비 107,713천원, 관리운영비 34,000천원, 사업비 220,000천원)

- 기타자본이전 : 65,000천원(임차보증금)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조직담당관-3970, '20.3.24.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(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) 및 제29조(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),

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노동정책담당관 복지시설팀 오윤경(☎2133-5418)